

/ 뉴스초점 /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의 무기 연기 이유는?

한전·산자부 지원 규모 이견

한전, 설립·운영비 정부지원 방안 마스터플랜에 포함 요구
정부, 형평성 문제·한국당 등 보수야당 반발 우려에 '난색'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열린 예정이었던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잠정 연기된 배경에 '정부의 지원 규모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이사회로부터 '경영 정상화' 압박을 받고 있는 한전은 정부에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요청하고, 이를 설립기본계획안(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 등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부상할 수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반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전남도가 한전, 정부부처 간 중재에 나섰다.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국가균형발전위(이하 균발위), 전남도,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균발위에서 열기로 한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가 들은 연기됐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전남도, 정부부처, 한전 관계자 등

의 참석이 예정됐던 회의임에도, 구체적인 배정 설명 없이 하루 전인 26일 갑자기 무기한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균발위 관계자는 "균발위에서 보류한 것이 맞다"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율할 사항이 있어 갑자기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날짜를 정하지 않은 '연기'라는 점에서 한전, 정부부처 간 이견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법적 토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총장 및 교원 채용 계획, 세계적인 인재 수급 방향 등을 담은 한전공대 마스터플랜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름을 요구한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전남도와 함께 정부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해 정부 재정 지원을 놓고 정부부처와의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개교 이후에도 세계 최고의 에너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에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한전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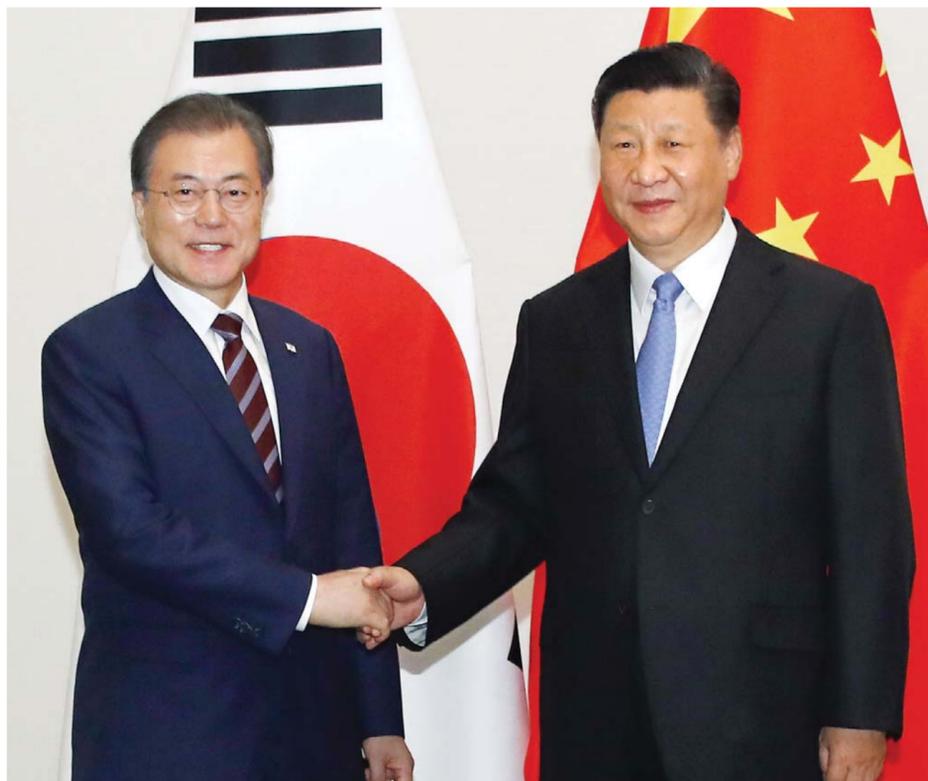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한전의 재정 지원 요청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조만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의 요청을 받아들여려면 시행령 개정 등 법적인 부분 등도 해결해야 된다"며 "또 정치적 이슈로도 부상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전과 정부부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한전공대가 전남의 지역 발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전, 지자체, 정부부처가 상호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내에 대학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해야 한다. 전남도와 나누시는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턴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정상 “대화프로세스 더욱 추동”

문대통령·시진핑 G20 일본서 회담 “전략적 소통 지속”
대기오염 협력 강화 공감... 시주석 조기 방한 의견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일본 오사카(大阪)에 도착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 방문 기간 G20 정상회의 참석은 물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7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5번째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5번째다. 작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만남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 20~21일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김 위원장은)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

기 위해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28일엔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연합뉴스

나주 SRF 또 표류하나

지역난방공사, 수천억 발전소 건립 비용 보전 방안 요구

혁신도시 지역민들의 입장 변화로 해결될 조짐을 보였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를 감안, 수천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립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이날 나주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 25일 열린 시민보고회를 통해 혁신도시 일대 지역민들의 입장을 위임받은 만큼 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앞서, 나주 지역민들은 발전소 시험가동조차 거부한 채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범대위

에 관련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담보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험가동과 분가동을 합해 3개월간 진행하자’는 방안과 주민수용성(주민투표+공론화) 조사를 ‘반경 5km 내 법정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는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기존 투입비용을 보전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난방공사측 입장을 놓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다음달 9일 ‘11차 거버넌스’를 열고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용 부담 주체 및 손실보전비용액 산정 등에 따른 입장차가 커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회의	▶14면
김정윤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18면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함께 만들어요!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2019.7.12 - 7.28.(17일간)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